



서울

● 5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2.6% 상승.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

- 전년동월대비 +12.6% = 소매업의 기여도 +2.0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10.6%p
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※관련실경은부록의기여도참조

- 5월 서울 소비경기는 물가상승의 가속 및 대외경기 불안 등으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 2년 1개월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의 효과와 함께 전년동월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오름폭이 (전월보다) 소폭 확대

●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2.9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32.9% 상승

- 5월 서울의 소매업은 일부 업종이 감소세를 유지하며 오름세 둔화. 전월 하락했던 가전제품·정보통신(4월 -8.6% ⇨ 5월 -19.9%), 기타 가정용품(4월 -11.0% ⇨ 5월 -11.0%) 등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기타상품(12.8%), 무점포소매(9.4%), 의복·섬유·신발(6.4%), 음식료품(1.8%) 등의 오름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(전월보다) 오름폭 둔화

· 5월 서울은 기타상품, 무점포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, 문화·오락·여가,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
· 반면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연료, 기타 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
- 서울의 숙박·음식점업은 음식점(4월 14.3% ⇨ 5월 24.6%), 숙박(41.7%), 주점·커피전문점(65.5%) 등 세부 업종 모두가 상승세를 보이며 오름폭이 (전월보다) 확대. 9개월 연속 숙박·음식점업 경기지수 상승세 유지

· 5월 서울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, 숙박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
| 서울 소비경기지수



|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| 서울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